

논문접수일 : 2012.06.20

심사일 : 2012.07.05

게재확정일 : 2012.07.23

현대패션에 표현된 추(醜)의 타투 메이크업

Ugly Tattoo Make-up depicted Contemporary Fashion

주저자 : 현명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Hyun myung-kwan

Dept. Clothing &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 장애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Jang ae-ran

Dept. Clothing &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타투의 개념
- 2.2. 타투의 종류, 기능과 역할
- 2.3. 타투 메이크업의 개념
- 2.4. 추의 개념
- 2.5. 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의 추의 미학

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추의 타투메이크업

- 3.1. 무형식(無形式)의 미
- 3.2. 불완전(不完全)의 미
- 3.3. 이형(異形)의 미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세기말부터 패션에 추(醜)이미지가 두드러지면서 타투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메이크업을 통해서 타투에 대한 관점 변화 및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대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 중에서 예술적 표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타투 메이크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예술로서의 가치를 재 규명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투의 미학적 측면에서의 추(醜) 이미지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타투의 개념 및 표현기법, 의미고찰을 바탕으로 타투 메이크업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타투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醜)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칼 로젠크란츠의 추(醜)의 미학에서 무형식성, 부정확성, 왜곡성을 차용한 후 무형식(無形式)의 미, 불완전(不完全)의 미, 이형(異形)의 미를 유추하여 타투 메이크업의 미적특성을 해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투 메이크업이 개성화·다양화 시대의 추(醜)이미지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조형예술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투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을 통해 무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타투 자체를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킴으로서 예술로서 가치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려 된다.

주제어

타투 메이크업, 추의 미학, 칼 로젠크란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chance to change viewpoints and awareness of tattoos through makeup as images of ugliness that have stood out and spread gradually since the end of the last century. For the purpose, this paper sought to define tattoo makeup which is used as a means of artistic expression of makeup expressed in modern fashion, and to examine its meaning.

In this study concepts, expression techniques, and meaning of tattoos were considered to examine the ugliness images from aesthetic perspectives of tattoos. Then, based on the consideration, a definition of tattoo makeup was established. To make out the images of ugliness in tattoo makeup, concepts of a lack of structure, incorrectness, and deformity were borrowed from the Aesthetics of Ugliness proposed by Karl Rosenkranz, and they were coded. Based on the coded meaning,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attoo makeup were inferred as beauty of formlessness, beauty of imperfection, and beauty of heterogeneity.

Given the above-stated findings, tattoo makeup is a makeup technique, which provides a chance to develop makeup into independent formative arts in the age of individuality and diversity. It is considered that it will provide infinite ideas and contribute to valuing tattoos itself as a genre of arts.

Keyword

Tattoo Makeup, Aesthetics of Ugliness, Karl Rosenkranz

1. 서론

현대인들은 세기말부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문화적 대동에 맞추어 보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자기만의 미적충족을 위한 방법으로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다. 한 예로, 현대인들은 자신의 개성이나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려는 욕구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패션과 메이크업이다. 패션과 메이크업이야말로 자신만의 이미지연출을 위한 표현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이크업은 얼굴표면에 직접 표현하는 제한성으로 인해 표현방법이나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20세기 이후 등장한 무제한적인 미(美)의 수용이 전형적인 미(美)에서 탈피한 주관적인 개성표현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메이크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적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해질 수 있었으며, 특히 추(醜)의 이미지가 현대 메이크업에 있어 중요한 미적 범주로 작용하게 되었다.

현대 메이크업에서 추(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하위문화는 고스(Goths)이다. 고스족은 영국 런던에서 1970년대 말 펑크족에 대한 반발로 탄생되어 검정색 옷만을 입고, 해골·뿔족한 침탑 등이 연상되는 장신구, 타투(tattoo), 피어싱(piercing), 검정·한색계열의 색채 사용, 창백한 얼굴표현 등으로 죽음과 악마적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그 중 타투는 고스족 이미지를 표현한 대표적인 표현기법으로 추(醜)이미지를 전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타투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美)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은 물론 미적가치의 표현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김광숙, 2001). 그 예를 들어보면, 최근 패션문화의 근원지인 파리, 뉴욕, 밀라노 등에서는 남성의 경우 상체가 타투로 치장된 것, 여성의 경우 민소매나 배꼽티 차림의 타투를 볼 수 있듯이, 종전의 혐오스럽고 폭력적 이미지의 타투가 패션으로 유입되면서 원시사회로의 회귀를 꿈꾸는 현대인의 정서적 공허감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신체장식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졌고 고급스러운 하이패션으로 전이되어 그 형태 또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김임정, 2001; 문정은, 2003; 홍지현,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투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타투에 대한 관점 변화 및 인식 전환의 계기를 메이크업을 통해서 마련하기 위해 현대 메이크업에서 예술적 표현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

도록 타투 메이크업의 개념 정립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이현주, 2006).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단행본 및 선행 연구, 학위 논문 등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타투의 개념 및 미적특성을 살펴본 후 타투 메이크업의 정의를 정립하고, 타투 메이크업의 미적 해석을 위해 칼 로젠크란츠의 추(醜)의 미학을 차용하였다. 여기에서 추(醜)의 미학을 차용한 이유는 세기말부터 기존의 문화와 사회, 정치, 관념들의 파괴와 윤리도덕의 타락, 패배주의, 현대인의 우울증, 소외감이 만연한 분위기인 퇴폐적 경향이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변형·과장·엽기적·시각적 충격을 주는 추(醜)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타투 메이크업 역시 추(醜)이미지로 표현영역이 확대될 수 있음을 도출함에 따라 타투 메이크업을 미학적 범주에 내포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차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로 2000년 이후에 발표된 4대 컬렉션과 「Vogue Italy」, 「Collezioni Dona」, 「Gap」, 「Collection」과 인터넷 패션 사이트를 중심으로 추(醜)이미지로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을 선별하여 분석·해석한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타투를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킨다면 예술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사려 된다.

2. 이론적 배경

2.1. 타투의 개념

오늘날 타투와 문신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의 1769년 타히티(Tahiti) 탐험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문신에 해당하는 영어인 '타투(Tattoo)'는 남태평양 타히티 어원 '타타우(Tattaw)'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 말은 폴리네시아어로 두드리거나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어근 Ta-에서 유래되었다(조현설, 2003). 제임스 쿡이 이러한 '타투'라는 용어를 서구에 소개하기 전에 서양에서도 피부에 상처를 내어 무언가를 새겨 넣는 행위의 명칭으로 '프릭(prick)' 혹은 '마크(mark)'라는 용어가 존재하였다. 여기에서 '타타우'는 피부를 소재로 하는 민속예술(ethnic art)의 경향이 강하지만, '프릭' 혹은 '마크'는 새기고자 하는 내용의 문화적 의미보다는 단지 날카로운 도구로 피부에 새기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일컫는 것일 뿐이었다(Govermar, A.B., 1984).

타투의 유래인 타타우는 BC 1500년 전부터 폴리네시아 군도에서 발전해온 '라피타(lapita)'라는 도기(陶器)의 장식과 매우 유사한 모양이라고 한 것을 보면,

타타우와 라피타의 유사성이 바로 타투가 순수예술에서 비롯된 장식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신(文身)은 피부에 상처를 만들어 색소 등의 물감을 넣어 글씨나 그림, 무늬를 새긴 것을 말한다. 입묵(入墨)·자문(刺文)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미개민족은 성년식(成年式) 때 문신을 하였다. 이밖에도 주술적·종교적 의례, 계급표시, 액땀, 결혼이나 출산의 호적(戶籍) 대응, 형벌의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타투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부어 무언가를 새기는 시술의 형태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피부에 새기는 문양의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는 문신이 서양의 타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신(文身)'은 '타투(tattoo)'에 비해 어원에서 신체에 형벌을 새겨서 표시하는 징벌적 기능이 직접적인 기원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신(文身)'이라는 용어가 패션으로서의 신체장식을 언급하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체장식을 패션의 한 분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타투(tattoo)'를 신체장식을 지칭하는 포괄적 패션용어로 서술하기로 한다(송남경, 박숙현, 2007).

2.2. 타투의 종류, 기능과 역할

인간들은 과거부터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고자 채색이나 타투 등으로 몸을 장식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림 1]과 같이 몸에 색칠하는 방법(Body Painting), [그림 2]와 같이 신체의 일부를 파손 또는 형태를 바꾸는 방법(deformation, mutilation) 등으로 신체를 장식하였다(강혜원, 2000). 피부색에 따라 [그림 3]처럼 피부색이 옅은 종족은 색소(色素)를 사용하는 고유의 타투를 행하였고, [그림 4]와 같이 피부색이 아주 짙은 종족에서는 상흔(傷痕, Scarring) 또는 난자(亂刺)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유의 타투를 행하였다(조현설,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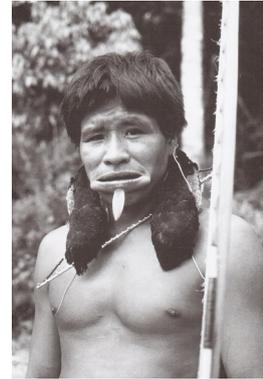
메이크업이 탈착이 가능한 의복이라면, 타투는 탈착이 불가능한 의복이라 할 수 있다. 신체장식의 주장자인 스타르(Starr)가 '지구상의 모든 종족 중에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종족은 있으나 장식을 하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을 보면, 장식이란 옷이나 장신구로 치장하기, 몸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등 어떤 방법으로든 신체를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표현을 의미한다(이인자, 1998). 즉, 원시인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하려는 욕구를 채색이나 타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장식 행동은 이성적,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행위자의 문화적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장식행동에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장식행동에는 비록 절대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지 않지만 신비로운 힘이 존재한다.

타투는 검은 피부 종족과 중국인들에게는 드물지만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편화되었고, 타투의 도안에는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주술적 효과가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지위, 신분,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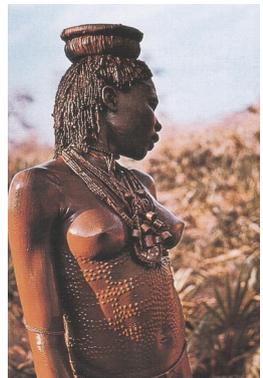
[그림 1] 바디페인팅
(출처 : 조진애, 손희정 & 이혜진(2001). 서양복식의 역사. p.10)



[그림 2] 아프리카 헤타족 (출처 : 퍼트리샤 리프 애너월트 (2009). 세계복식문화사. p. 523)



[그림 3]마오리족 타투 (출처 : Helen, R. (2003). fashionable History of makeup & body decoration. p.19)



[그림 4] 누바족 여인의 상흔(출처 : 퍼트리샤 리프 애너월트 (2009). 세계복식문화사. p. 512)

이상과 같은 인종별 타투의 형태 및 내적의미를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으며, 왜 다수의 종족들이 타투를 하였는지 그 역할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신분의 상징이다. 사춘기에 신체적으로 발달하면 의식적인 타투를 거쳐 부족사회의 일원이자 다른 집단과의 구별,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지역별	인종	타투의 형태	내적의미
태평양권	남태평양 마르케사스 섬 원주민	푸른문신(손)	여성취사업무 부여(밀가루반죽)
		성숙시 완전한 형태	연륜과 부의 시사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얼굴전체 곡선, 직선, 당초무늬 장식	사회적 지위 (높은 지위의 신분)
곡선위주 (나선문양, 소용돌이 형)		불사	
아시아권	일본의 아이누족	전염병이 돌때 모든 여성이 문신함	주술
	타이아 고산족	남성의 턱 문신, 배문신	전쟁능력 사냥할 때 규정된 무기사용가능 (자격과 시기가 정해져있음)
		얼굴 세가닥 방사선 문양(여자)	방직능력의 표상
	중국 리족	12,3세 얼굴문신 16,7세 출가하면 가슴문신 20세 이후 결혼 후 음부에 문신	통과의례- 종족의 표지 사회적 신분 획득 결혼할 자격
	한국의 조선시대	초범: 오른팔에 재범: 왼쪽팔에 도자문신	형벌의 징표 (창피 및 구별의 용도)
아메 리카 및 아프 리카 대륙	콩고의 바야카족	적색 채색(이마)	혼령의 복수예방
	아프리카 가나 북부 곤야족	사선 무늬의 상처 (생후 7일후 팔 위쪽에서 배꼽까지 상흔)	신생아사망 예방 사회구성원자격획득의 표시
	나제르의 후라니족	여인들의 안면 채색	악령과 병으로부터의 보호
	서부지역의 플라니족 여인	안면채색얼굴	악령과 병으로부터의 보호
	에스키모	턱선 줄무늬문신(여자)	사회적 성숙, 여성보호
유럽	고대 그리스인 에르투리아 인	전쟁시 Body Painting	홍분의 목적 적색: 기와 영웅심 아라베스크모양: 적을 위협

[표 1] 인종별 타투형태 및 내적의미 분석

둘째, 주술적 측면에서의 종족의 상징이나 표시로, 장식적인 면보다는 타투장식을 통해 행운을 부르는 부적으로 사용되었다. 가족이나 부족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집단과 구별하기 위해 자기들만의 대표동물을 선택하여 몸에 새겨 그려넣음으로써 특징적 표시를 하였다. 이는 반영구적인 신체장식으로 소속집단과 그 밖의 사람들을 구별하며 자신의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려는 예술적인 미(美)의 표현으로 자기신체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즉, 성적 매력과

부(富), 지위, 힘을 나타내기 위해 타투를 행하며, 이것은 신체장식을 통해 계층의 분류가 다양한 사회에서 지위와 부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2.3. 타투 메이크업의 개념

메이크업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차드 크라슈(Richard Crashou)에 의해서이고, '메이크업'이라는 화장형태는 20세기 미국 할리우드 전성기에 맥스 팩터(Max Factor)가 대중화시켰다.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은 돋보이고 약점이나 추(醜)한 부분은 수정 또는 위장하는 수단을 일컫는 이러한 '메이크업(make-up)'은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프랑스로 '마꾸아주(maquillage)'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페인팅'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질은 화장을 일컫는 것에서 유래되었고, '토일렛'은 화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치장을 의미하며, '마꾸아주'는 분장을 의미하는 연극용어에서 유래되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메이크업은 그리스어 '코스메티코스(Cosmeticos)'의 '잘 정리한다', '감싼다'라는 의미가 있다. 코스메티코스는 무질서·혼돈의 의미인 카오스(Chaos)의 반대개념으로 코스모스(Cosmos)에서 유래되었으며 '질서 있는 체계', '조화'를 의미한다(春山行父, 1976).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메이크업은 비언어 의사전달 수단의 하나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그 사람의 외모나 얼굴모양, 표정, 대화의 내용이나 몸짓, 행위 이상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도구이며, 이처럼 외적동기에 비중을 두는 것은 인간이 외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특질을 반영한다(김덕록,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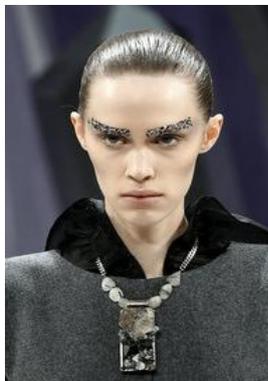
최근 패션쇼에서 타투 메이크업은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타투를 재해석하고 타투의 의미, 종류, 표현방법 등을 메이크업의 형식으로 복식에 응용하고 있다(오정희, 2005). 과거에는 타투를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여 한 번 새기면 영구적인 것으로만 여겨야 했다면, 오늘날은 즉흥적 감성표현을 위한 일회용 타투나 화장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은 타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인 의미와 심미적인 요소를 패션작품의 모티브로 사용하면서 인식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패션쇼에서 등장하고 있는 타투를 살펴보면, [그림 5]처럼 눈썹타투를 한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눈썹을 과장되게 그려넣거나, [그림 6]과 같이

남성의 팔 한쪽에 타투를 함으로써 강인함을 표현하기도 하며, [그림 7]처럼 얼굴이나 바디에 색이 있는 안료를 페인팅하여 타투효과를 응용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8]은 얼굴이나 바디에 상흔타투효과를 낸 타투 메이크업이며, [그림 9]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비대칭적으로 그려넣음으로써 부자연스러움을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이다. [그림 10]은 레이스와 이질적인 소재인 가죽과 시폰을 활용하여 타투 메이크업을 표현하였고, [그림 11]은 비즈를 이용해 마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이며, [그림 12]는 이질적인 소재인 금박종이를 덧붙여 눈두덩이의 면적을 확대시킨 메이크업이다.

이처럼 타투 메이크업의 기법들은 극적효과와 충격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메이크업으로 재탄생 되고 있다. 이는 신·구세기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퇴폐적 경향과 탐미적 경향으로 분석된다(장미숙, 양숙희,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투 메이크업을 타투의 외적형식 및 표현기법, 타투의 상징적 의미는 물론 타투의 내적의미를 응용하여 메이크업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타투 메이크업을 직접 몸에 새긴 타투, 상흔타투와 유사한 입체적인 효과를 표현하기 위한 크리스탈 타투, 이질적 소재인 비즈·시스루 소재 등을 덧붙여 표현한 타투, 레인보우 타투, 타투 이미지를 바디페인팅으로 위치전위 및 극단적인 양식의 혼합·과장·변형된 표현, 헤나(henna), 패션타투스티커와 판박이 등으로 기하학·추상적 패턴을 표현한 것, 그리고 응용한 상형문자를 새겨 넣어 토속적·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한 타투효과 등을 응용하여 추(醜)이미지의 퇴폐적 경향 및 탐미적 경향으로 표출함으로써 신체의 극적효과와 충격효과로 나타난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인위적으로 눈썹 표현. 2012 F/W Ready to wear, Chanel.(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6] 타투 메이크업. 2004 S/S Alexander McQueen.(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7] 안면채색. 2012 F/W Ready to wear, Meadham Kirchhoff.(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8] 타투 메이크업. 2005 F/W Girbaud.(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9] 타투 메이크업. 2003 F/W Bernhard Wilhelm.(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10] 타투 메이크업. 2012 S/S Alexander McQueen(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11] 비즈를 사용한 타투 메이크업. 2007 오뜨꾸뛰르 Jean Paul Gaultier.(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12] 금박을 이용한 타투 메이크업. 2012 S/S Fendi(출처 : <http://www.style.com>)

2.4. 추(醜)의 개념

추(醜)는 미(美)가 결핍된 상태 즉, 미적관조를 방해하는 것으로 미(美)에 반(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고대 플라톤(Platon)은 경멸적인 것과 사소한 모든 것 즉, 궁극적으로 무존재한 모든 것을 추(醜)로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쾌(快)와 미(美)의 결핍, 희극의 본질로 받아들였다.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악(惡)이나 추(醜)는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대상에 의해 미(美)를 돋보이게 하는 하위요소의 개념이라 하였다(Theoder, W.A., 홍승용 역, 1984). 17, 8세기에 이르러 브뤼케(Bateux, E., Burke)는 무의식 속의 환영(幻影) 가운데 획득한 존재적 추(醜)와 함께 추(醜)를 미(美)의 정반대되는 것이 아닌 '숭고(崇高)'라고 규정하였고, 미학적으로 취급하여 고통과 위협의 개념 아래 귀결시켰다(윤순향, 1985).

결국 이러한 미(美)와 추(醜)의 차이는 '주관적 취향'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칸트(Kant)의 명제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다시 니체를 통해 추(醜)의 형이상학적 관점이 깨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근대에 헤겔(G.W.F.Hegel)미학이 등장하면서 추(醜)개념의 절대적 의의가 다져지게 되었다. 헤겔(G.W.F.Hegel)의 변증론적 인식인 절대정신 속에서, 정(Thesis)·반(Anti-thesis)·합(Synthesis)으로 이어지는 예술정신이 지향되어 완전한 이념으로 승화되는 과정 속에서 추(醜)의 미학적 정립이 고찰되었다(G.W.F.Hegel, 1996).

최근에는 립스(Lipps)의 미학에서도 추(醜)는 '소극적인 감정이입'의 대상이지만 미(美)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미(美)를 한층 더 인상 깊고 눈에 띄게 하는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미(美)에서는 직접 그 실현을 위한 조건이 되며, 또한 미(美)가 그것에 대항하고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그 힘을 나타내게 한다는 점에서 추(醜)의 적극적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논장편집부, 1988).

따라서 추(醜)에 관한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대체로 추(醜)는 미적 범주의 체계 중 순수미(純粹美)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최대한도의 불쾌와 부조화의 요소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醜)의 참여로 인해 대상에 대한 활기를 부여하고 전체적인 생동감을 주는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되며 고통과 함께 특수한 쾌감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미적 범주에서 추(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종류의 숭고(崇高)는 물형식성에서 추(醜)의 요인을 포함하고 비장(悲壯)은 종종 나쁜 것과 사

악한 것을 함께 표현한다는 점에서, 또한 골계(滑稽)는 비늘악소(卑訥惡笑)한 것의 표현이나 회화에서 존재하는 점에서 추(醜)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의 추의 미학

헤겔파인 칼 로젠크란츠는 미학사상 최초로 추(醜)를 미(美)의 속성으로 파악하였고 미(美)와 추(醜)의 상관관계를 풀어내었다. 그는 형이상학적 이상실현과 절대적인 미(美)의 추구를 위해 미(美)의 대립적·부정적 의미로 추(醜)의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추(醜)의 원리는 미(美) 자체의 이념 속에 존재하며, 미와 추의 조화를 통해 진실된 이상성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추(醜)는 부정적인 미(das Negativschöne)로 불완전한 미(美)를 의미하지 않으며, 미(美)의 부정이자 미와 동격의 대립개념으로 보았다(Karl Rosenkranz, 1996).

그는 저서 「System der Wissenschaft (1850)」에서 미(美) 자체를 우월한 미·우연적인 미·절대적 미라 하였다. 추(醜)는 천박함·혐오·풍자이며, 희극적인 것은 천진·익살·위트적 구조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존재영역에 따라 추(醜)를 자연의 추(Naturhassliche)·정신의 추(Geisthassliche)·예술의 추(Kunsthassliche)로 분류하였으며, 미(美)의 근본원리는 정신의 자유성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추(醜)의 근본원리도 정신의 자유성의 부정과 파괴에 있다고 하였다.

개념		특징	
물형식성	불일치	불일치성=형식내에서의 구별→물형식=형식의 적극적 반대→형태의 난잡성 = 추	→ 무형식의 미 (無形式의 美)
	불균형	균형의 부재→난잡성→억압소멸	
	부조화	중속적인 대칭과 규칙성의 배제 통일성의 무시	
부정확성		예술적 범칙성의 위배 = 예술적 불완전	→ 불완전의 미 (不完全의 美)
왜곡성	비속	정신의 저속화, 통속성, 과장성, 속물적, 퇴폐적	→ 이형의 미 (異形의 美)
	혐오	무섭거나 소름 끼치는 것 인간성 말살, 죽음, 공포, 고통의 연상	
	회화	예술작품의 결합 → 조롱, 경멸 이상과 모순, 유희성, 의의성, 냉소적	

[표 2]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그러므로 미적대상의 형식과 내용 및 이들의 관계인 표현 중 어느 것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이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몰형식성(Formlosigkeit)은 형상의 반대인 불일치, 형상의 반대이면서 구별적 배치를 뜻하는 불균형, 반대적 형상의 개별자인 부조화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며(안선영, 양숙희, 1995), 두 번째는 표현의 부정확성(Inkorrektheit), 세 번째 왜곡성(Defiguration)은 정신적 자유의 부정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으로(윤순향, 1985), '비속(Das Gemeine)', '혐오(Das Widrige)' '희화(Das Komische)'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미적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칼 로젠크란츠의 추(醜)의 미적특성을 차용하여 무형식(無形式)의 미, 불완전(不完全)의 미, 이형(異形)의 미로 유추·코드화 하였다.[표 2]

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추의 타투메이크업

현대 패션에 표현된 추(醜)의 타투메이크업의 미적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에서 유추·코드화한 무형식(無形式)의 미, 불완전(不完全)의 미, 이형(異形)의 미로 다음과 같이 분석·해석하여 살펴 볼 수 있다.

3.1. 무형식(無形式)의 미

무형식이란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형식을 배제하거나 무시함으로써 표현되어지는 미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무형식의 미는 칼 로젠크란츠의 몰형식의 의미에서 차용·유추한 코드이다.

타투 메이크업의 무형식의 미는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중성적 이미지 표현이나, 대칭·균형·조화 등의 디자인 원리를 파괴하여 기본적인 형태를 무시하는 등 다양하게 표현된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사용범주에서 벗어난 엉뚱한 배치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부자연스럽게 표현된 것도 예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3]은 눈매의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면의 기본영역이 무시되고, 색의 사용범주도 파괴된 어두운 무채색으로 페인팅 함으로써 무형식의 미가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으로, 이는 곧 해학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14]는 얼굴에 통일성 없이 흩뿌리듯이 비즈를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으로 붙여 넣어 불균형을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형태의 난잡성으로 다른 형식을 억압, 소멸케 한다. 이러한 표현에는 일상적 규칙위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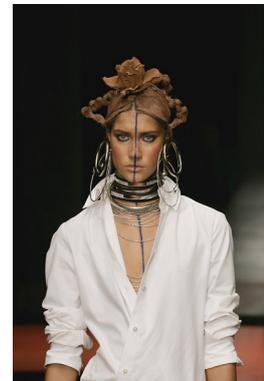
[그림 13] 2011 S/S Rick Owens.(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14] 2011 F/W Maison Martin Margiela.(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15] 2007 S/S Ashish.(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16] 2006 S/S krizia.(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15]는 색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nude 메이크업 위에 기하학적인 선으로 윤곽선만 단순화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음영처리를 한 듯 보이는 표현과 눈썹의 위치전환으로 엉뚱한 배치를 함으로써 얼굴을 부분적으로 생략·강조하여 전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무형식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은 상흔타투를 응용한 메이크업으로, 인체를 분리하듯 파란 선으로 상체 깊숙이 채색하여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러한 일상적 규칙에 위반하는 표현을 통해 불완전의 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곧 중성적·양성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3.2. 불완전(不完全)의 미

불완전이란 완전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로, 불완전의 미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발현되는 미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불완전의 미는 칼 로젠크란츠의 부정확성의 의미에서 차용·유추한 코드이다.



[그림 17] 2011 S/S Vivienne Westwood.(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18] 2012 S/S Givenchy.(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19] 2007 F/W Manish Arora.(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20] 2005 S/S Oswald Boateng.(출처 : <http://www.style.com>)

미적 범주로서 추(醜)의 부정확성은 예술적 불완전을 의미하므로 불완전의 미는 완성을 내부로부터 헤쳐하는 공허미와 함께 미완성 혹은 추(醜)의 미를 추구한다.

타투 메이크업에 나타난 불완전의 미는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서 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색을 극도로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반대로 색사용을 최대한 줄여 형태를 은폐·생략함으로써 어떠한 성(性)도 찾아 볼 수 없는 모호하고 불완전한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콜라주기법으로 표현하거나 비구조적인 형태를 의도적으로 취함으로써 불완전한 미가 표현된다.

[그림 17]은 형태를 알 수 없는 모호하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그려 넣은 불완전한 형태로 미완성의 미가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는 예술적 불완전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18]은 눈 바로 아래에 비즈를 붙임으로서 마치 또 하나의 눈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듯한 느낌과 흐르

는 눈물처럼 보이는 이중효과를 통하여 불완전의 미가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는 영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19]는 마치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듯이 얼굴전체에 기이할 정도로 색의 과장을 통해 화이트 페이스로 표현하였고, 눈 주위는 보라색 계열의 색상으로 기하학적인 패턴을 그려넣은 타투 메이크업으로서, 비인간적이며 공상영화에 나오는 듯한 이미지로써 미래지향적 경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20]은 콩고의 바야카족의 토속적 양식을 모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즉, 붉은색 안료로 이마에 한 페인팅은 혼령의 복수방지의 의미를 내포하며, 눈 주위를 어두운 브라운계열색으로 채색하여 마치 안경을 쓴 듯한 표현은 현대적 양식을 표현한 것이다. 다시 그 위로 전쟁능력을 의미하는 모호한 검은 선을 그려 넣음으로써 양식의 혼합으로 인한 불완전의 미가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러한 표현에는 예술적 불완전성과 미완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3.3. 이형(異形)의 미

이형의 미는 칼 로젠크란츠의 왜곡의 의미에서 차용·유추한 코드이다. 이형의 미란 대상을 시각적인 영상으로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에 따라 고의로 변형시키거나 과장하는 것으로 안정된 시각적 균형과 단조로운 형태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며 동적인 미적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극도로 과장된 표현은 얼굴의 구조나 비례를 무시하여 과감한 변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왜곡이자 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체의 변형(body modification)을 의미한다. 이형의 미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미적 '반가치'를 표현하는데 비정상적인 외형, 생략된 신체 표현 등을 통해 환상적인 괴기감이나 혐오감을 표현한다.

타투 메이크업에서의 이형의 미는 기존의 정형적인 스타일을 파괴하여 이목구비 등 얼굴의 윤곽을 크게 고려하지 않거나 강조되지 않던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목구비의 형태, 좌우 대칭구조를 파괴하는 안티감각은 물질문명에 대한 도전이며 인간성 말살에 대한 고발일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또한 색의 조화를 파괴하거나 색을 과장하여 획일화된 미에 대한 염증을 표현, 기형적인 색의 형태로 그로테스크하게 표현,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도록 불쾌하고 공격적으로 표현, 인간이 느끼는 황폐함을 공포스럽게 표현하는 것 등은 모두 왜곡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 2011 F/W Vivienne Westwood.(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22] 2011 F/W Christian Dior.(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23] 2007 S/S Les Hommes.(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24] 2004 S/S Rocco Barocco.(출처 : <http://www.style.com>)

[그림 21]은 인디언족의 슬픔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검정색으로 아이홀(Eye -Hole)을 깊이감 있게 표현, 흑백톤의 페인팅을 얼굴 전체에 흘러내리듯이 표현한 타투메이크업이다. 이는 기괴하고 섬뜩한 느낌, 인간성 말살, 죽음·악마적인 분위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22]는 원시시대에 성숙한 여인에게만 특별한 장식이 허용된 것을 응용한 타투메이크업으로, 눈썹에 과장된 크리스탈 타투에서 이형의 미가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에로틱하며 속물적인 특징이 표출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3]은 신체의 골격 구조인 늑골을 모방·단순화 하여 표현된 타투메이크업으로, 눈의 면적을 과장되게 확대 변형, 턱 윤곽선을 뚜렷이 잡아 골격구조를 표현, 입술은 축소시켜 표현된 것이다. 이는 마치 원시부족의 바디 페인팅처럼 노골적인 골격구조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죽음·해체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24]는 성적매력의 대상인 가슴을 은폐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치 하트모양으로 페인팅한 후 그 위를 see-through화시킴으로써 은폐와 노출의 반가치 양면성이 표현된 타투메이크업이다. 이는 신체의 일부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 변형함으로써 에로틱함을 표현하여, 여성의 성숙한 의미를 내포시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타투의 추(醜)의 미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외적형식	내적의미	표현기법
불행식성 →→ 무형식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의 일반적인 사용영역무시 - 위치 전위 및 색의 영동한 배치 · 여러 색의 극단적 혼합 - 색의 대조 및 산만한 느낌 · 디자인 원리의 파괴 · 부자연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위적·해학적 · 일상적 규칙 위반 · 난잡성 · 중성적·양성성 · 모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 확대·면의 무시 · 위치 전환 · 색의 사용범주 파괴 · 조형과 색채의 조화·원리 파괴 · 좌우 비대칭적 표현 · 기하학적 선·색채 배색 · 지나친 축소·생략·강조·이질적 요소의 도입 · 다른 소재의 병치
부정확성 →→ 불완전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 양식과 이미지를 혼용 및 차용 · 모호하고 불완전한 추상적 형태 · 불완전한 추상적인 형태 · 비구조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로부터의 해체 · 공허미, 미완성 · 예술적 불완전성 · 세기말적 경향 · 미래지향적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의 과장 또는 은폐 · 기하학·추상적 패턴 · 상징적 기호 사용 · 이질적 소재의 끌라주 기법
왜곡성 →→ 이형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도로 과장된 표현 · 구조, 비례 무시한 인체의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주의 · 탈중심화 · 비인간적인 분위기 · 유희성·의외성·냉소적 · 에로틱·불건전성 · 고통·죽음·공포성·혐오감 · 악마적·인간성 말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변형, 모방 · 비정상적인 신체의 변형 · 한색계열 색채 사용 · 단순화와 과장된 표현 · 외설, 강조, 모순 · 일상 규칙의 위반

[표 3] 타투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의 미적 특성

4. 결론

과거의 메이크업이 얼굴에 바른다는 기본적인 미와 얼굴이라는 부위에 한정되어졌다면 오늘날의 메이크업은 주관적인 개성표현을 위한 미적 범위를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존의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은 물론 미적가치의 표현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타투 메이크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패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는 타투 메이크업의 미적특성을 위해 칼 로젠크란츠의 추(醜)의 미학을 차용하였고 이를 무형식의 미, 불완전의 미, 이형의 미 등 3가지로 유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석하였다.

1. 무형식의 미는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인 물질성에서 유추·코드화 한 것으로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의 특성을 보인다.

무형식의 미는 좌우 비대칭적인 표현이나 이질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중성적·양성적 표현, 부분적인 확대·면의 무시를 통한 일상적인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부자연스러움과 모순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색을 극단적으로 혼합하고, 조형과 색채의 조화원리를 파괴함으로써 난잡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위치의 전위 및 색의 엉뚱한 배치를 통해 전위적이고 해학적인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2. 불완전의 미는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인 부정확성에서 유추·코드화 한 것으로 예술적 불완전성의 특성을 보인다.

무형식의 미는 색의 제한 및 축소·생략을 통해 임의적이고 모호한 추상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비구조적 형태와 색의 과장 또는 은폐를 통해 세기말적 경향, 미래지향적 경향으로 표현되어지고, 기하학적·추상적 패턴이라는 불완전한 추상적 형태를 통해 공허미와 미완성의 특성으로 표현되어진다. 또한 이질적 소재의 콜라주기법으로서 모호성과 불완전성을 보여주며, 이질적양식과 이미지의 혼용 및 차용을 통해 내부로부터의 해체, 예술적 불완전성의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3. 이형의 미는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인 왜곡성에서 유추·코드화 한 것으로 비속·혐오·회화의 특성을 보인다.

이형의 미는 한색계열의 색채 사용을 통해 죽음과

악마적 분위기를 나타내며, 위치의 변형과 모방을 통해 해체주의와 탈중심화 경향 및 불건전성을 표현하며,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과 인위적 장식을 통해 질서의 파괴 및 타락, 퇴폐적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구조·비례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인체의 변형방법을 통해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표현함으로써 유희성·의외성·냉소적, 고통, 공포감, 혐오감, 죽음의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추(醜)의 미학의 특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타투 메이크업 역시 미학적 특성을 토대로 표현되어질 수 있으며,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가치의 표현수단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사려 된다.

앞으로 메이크업이 독자적인 조형예술로 더욱 발전함에 따라 타투 메이크업의 특성은 다양한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으로써 무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더욱이 개성화·다양화 시대와 더불어 타투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타투에 대한 관점 변화 및 인식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타투를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킴으로서 예술로서 가치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현대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을 2000년대 이후의 최근 8년간의 4대 컬렉션에서의 패션현상으로만 제한하였으므로 대중적 패션에 나타난 타투 메이크업의 일반적 현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중적 타투 메이크업의 현상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 (2000).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김광숙 (2001). 바디아트의 조형적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인체예술학회지』, 2(1), p.19.
- 김덕록 (1997).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 답게.
- 김임정 (2001). 「문신에 나타난 상징성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논장편집부 (1988). 『미학사전』. 서울: 논장
- 문정은 (2003).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연구 - 지역특성과 시대 변화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p.120.
- 송남경, 박숙현 (2007). 타투(Tattoo)와 문신(文身)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및 유래에 나타난 차이점 비

- 교, 『의류학회지』, 31(1), pp.114~118.
- 안선경, 양숙희 (1995).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醜)의 개념 -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 까지를 중심으로 -. 『복식』, 19(2), p.5.
 - 오정희 (2005).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연구 : 90년대 이후 패션쇼 중심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향 (1985). 「Karl Rosenkranz에 있어서의 「추의 미학」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 (1998).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p49.
 - 이현주 (2006). 「타투(Tattoo)미학의 타자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숙, 양숙희 (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3), pp.83-84.
 - 조진애, 손희정 & 이해진 (2001). 『서양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p10.
 - 조현철 (2003). 『문신의 역사』. 서울: 살림.
 - 최미라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추(醜)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퍼트리샤 리프 애너월트(2009). 한국복식학회 옮김. 『세계복식문화사』. 경기도 고양: 예담
 - 홍지현. (200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문신 유형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春山行父. (1976). 『おいしいわの文化史』. 東京: 平凡社.
 - Helen, R. (2003). *fashionable History of makeup & body decoration*. London: Raintree
 - Govermar, A. B. (1984). *Issues in the Documentation of Tattooing in the Western World*. Diss. U of Texas at Dallas.
 - G.W.F.Hegel. (1996).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두행숙 역(1996). 『헤겔 미학』.경기도: 나남출판
 - Karl Rosenkranz. (1996). *Ästhetik des Häßlichen*, Leipzig.
 - Theoder, W. A. (1984), *Aesthetic Theo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홍승용 역 (1997). 『미학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http://www.style.com>
 - <http://skalty.blog.me/40139828068>